

回甲遺憾

黃燦鑄

本來 글이란, 더우기 隨筆이란 마치 누룩이 떠서 술이 되듯이 어떤 想念이 머리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다가 술익듯이 익어서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우기 隨筆은 머리로 짜내는 것도 아니고 想像으로 虛構化하는 것도 아니어서 가슴 속에 깃들어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쓰여지지 않는다.

George Gissing의 경우는 빛에 몰려 마구 장수를 늘리다 보니 어찌다 楽作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글을 職業으로 하는 사람치고 Gissing처럼 뭔가에 몰리고 쫓겨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Gissing을 여기서 내세운 것은 지금 쓰기고 있는 내 처지를 조금이라도 변명하고 싶어서이다. 今年이 回甲이라고 科에서 내는 英學論集을 내 回甲紀念號로 할테니 論文이든 隨筆이든 뭔가 하나 꼭 쓰라는 科長의 분부였다. 고마운 생각에 쉽게 그러겠노라고 대답해 놓은 것이 별써 月餘. 그러나 어찌어찌 하다보니 이미 論集 마감은 춘작을 다툴정도로 긴박해지고 내 글은 論文은 커녕 雜文도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擔當 助教한테 來日 아침까지 가져 온다고 確約하기를 별써 다섯번. 이미 절대로 글을 쓸 수 없을정도로 늙어버린 것일까? 이런 내 깜새를 알고 科長이 「回甲遺憾」이라는 글 제목까지 주었다. 자 Gissing의 흉내를 내는 도리밖에 없다.

甲子乙丑, 뭐뭐 세다가 몇 바퀴가 어떻게 돌고나서 回甲이 되는건지 나는 모른다. 確實한 것은 六十번째의 生日날을 回甲이라고 한다는 事實과 내 父母님 世代까지만 해도 이날을 매우 祝賀했다는 事實이다. 나도 마음으로부터 父母님 回甲을 祝賀해드렸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게되니 祝賀운운이 어색할 뿐만이 아니라 抵抗感마저든다. 60年 산 것을 祝賀하기로 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때 보다 平均壽命이 10年以上은 늘었을 것이다. 따라서 回甲도 70으로 延期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나는 所謂 回甲잔치라는 것을 벌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앞서 말한 平均壽命의 문제도 있거니와 애들 둘이 다 潛美中이고 그 母도 孫子를 받아주려 그 곳에 가 있는데 무슨 生日잔치를 차리겠는가. 또 本來 生日잔치란 本人이나 子孫들이 차려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인데 會費를 가지고 오십사하는 것도 道理가 아니다. 그런데 어찌다 語學研究所 관계로 그단 잔치아닌 잔치가 되어버렸으니 할 말이 없다. 새삼 友情들이 고마웠을 뿐이다. 그래 이래저래 回甲이라는 것을 새삼 되씹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0을 孔子는 耳順이라 했다. 孔子의 뜻은 60이되면 그간의 경륜때문에 天地萬物의 理致를 알게 되고 생각과 判斷이 成熟해져서 귀에 들리는 남의 말의 뜻을 훤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지는 孔子같은 聖賢이나 도달할 수 있지 나 같은匹夫의 경우에는 턱도 없다. 다만 이 “順”字의 해석을 내 멋대로 해서 孔子의 60이 아니라 내 60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 한다. 順을 나는 내멋대로 英語로 obedience라고 풀어본다. 따라서 귀에 들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머리에 생각되는 것, 더 크게는 내 運命자체에

까지도 順從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내自身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돈도 명예도, 德도 健康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運命에의 順從이란 말이 커지 實은 하나의 諦念아니겠는가? 諦念에는 敗北意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諦念에는 하나의 知慧가 있다. 덧없는 慾望을 버려야 한다는. Desire is bad! 한 때 政局이 바뀔 때 내게 관한 헛소문도 꽤 떠돌았고 나도 그 헛소문에 밀려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回甲과 더불어 이것만은 깨끗이 정리한 心境이다. 鐵山里 山기술 십여평 짜리 아파아트에 자리를 잡고 보니 하늘과 바람이 맑고 달이 내 눈 앞에 걸릴 때도 있다. 아낙네들과 애들 떠들어대는 소리에 당황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조용하기만 하다.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소리를 여러번 들어왔지만 正確히 돈이 얼마 있어야 된다는 額數는 한 번도 들어 본 일이 없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額數는 그 慾望의 度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진다. 나는 그 額數를 내 年金으로 환산한다. 65歲를 지나서 하루에 萬餘원이면 살 수 없을까. 애들은 애들대로 저희들 길을 해쳐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좀 덜 미워해야겠다. 이제 미워해 보았댔자 어쩔 도리도 없을 바에야. “Hatred is lack of imagination”이라는 Greene의 말이 세 삼 머리에 떠오른다. 이만큼 사람을 쥐어왔으면 사람이 運命의으로 지고 나온 잘못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텐데, 이것만은 쉽게 터득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애는 써 보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物質的인 慾望은 諦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싶은 慾望은 좀체 諦念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慾望은 슬픔을 넣지마는 「사랑」은 의로움을 넣기 마련이다. 과연 聖賢들은 이 의로움을 모두 克服을 하였을까. 하였다면 回甲前이었을까 後였을까. 단일 後였다면 아직도 내게는 위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 紀念號는 언제 몇卷째일 것일까. 그 때는 뭐라고 쓸 것인가. 그러나 그런 紀念號는 실은 이번 밖에 없다.